



Transportation Market Insight

최민기 선임연구원 ✉ minki.choi@shinhan.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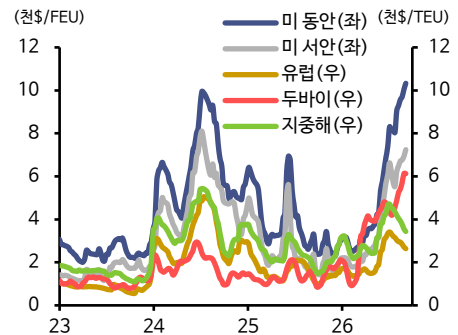
주요 이벤트 캘린더

월	화	수	목	금	주요 지표
(지난주) 9/14	9/15	9/16	9/17	9/18	9/18(금) 기준 운임
			美 Fed 기준금리	韓 8월 CPI	SCFI 3,687.83p (+0.7% WoW) CCFI 1,897.15p (+1.9% WoW) BDI 3,370p (-3.9% WoW)
(이번주) 9/21	9/22	9/23	9/24	9/25	9/18(금) 기준 매크로 지표
		韓 9월 소비심리			원/달러 1,388원(+43원 WoW) WTI \$100.3/bbl(+0% WoW) 두바이유 \$115.5/bbl(+0% WoW)

Trend Comment: 수에즈 복귀 가속, 원가 절감과 공급 부담 사이의 딜레마

- ◆ 홍해 정세 악화에도 컨테이너선 복귀 지속. Gemini 얼라이언스(Maersk·Hapag-Lloyd)는 수에즈 경유 노선을 기존 2개에서 9월 19일부터 6개로 순차 확대 예정
- ◆ 후티 반군의 사우디 연계 선박 위협 이후 아덴만 통항 원유선은 전월 대비 50% 감소했으나, 컨테이너선 통항 선박은 200만TEU로 5월 대비 두 배 증가해 선종별 차별화
- ◆ 최근 SCFI는 유럽·지중해가 하락한 반면 미주·중동은 상승해 항로별 차별화. 유럽 운임 하락을 수에즈 복귀 결과로 단정 어려우나, 유럽 항로 약세에 선박 부담 추가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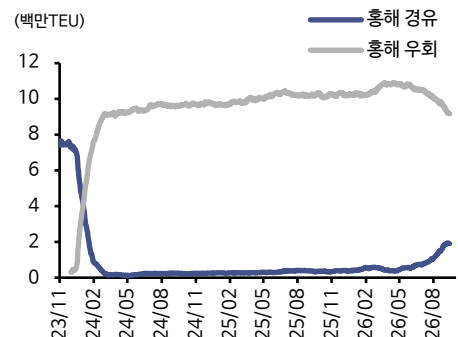
SCFI 노선별 추이



자료: Clarksons, 신한투자증권

- ◆ 희망봉 우회는 글로벌 컨테이너선 선박 수요를 약 12% 늘리는 효과. 운임 지지는 모든 선사다 공유하나, 추가 연료비와 선박 투입 부담은 우회를 유지하는 개별 선사에게 귀속. 먼저 수에즈로 복귀한 선사는 원가와 서비스 경쟁력 개선할 수 있지만, 운임 하락은 업종 전반에 영향
- ◆ 프리미어 얼라이언스는 주요 얼라이언스 중 유일하게 아직 홍해 복귀를 시작하지 않음. 경쟁사 뒤따라 복귀할 시 원가는 개선되나 유효선박 증가로 운임 하방 압력 확대
- ◆ 최근 후티 반군-사우디 교전 격화와 기뢰 부설 의혹 등 홍해 불안 확대는 수에즈 복귀를 지연시킬 수 있는 요인

홍해 경유 vs 우회 컨테이너선 선박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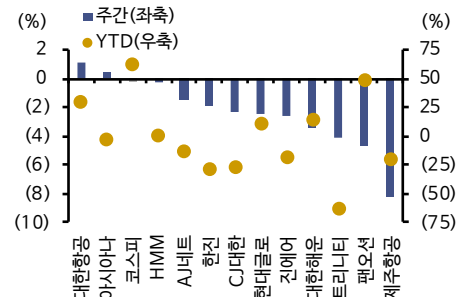


자료: Clarksons, 신한투자증권

Market Review: 중동 불확실성 속 탱커 운임 급등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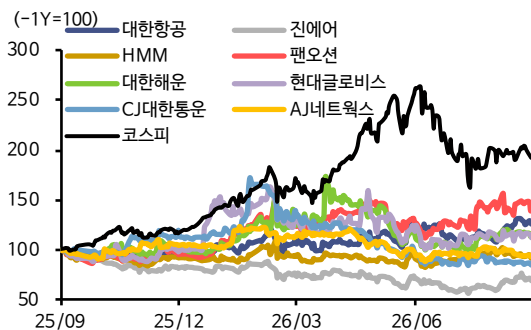
- ◆ 9/14~9/18 운송 업종 -1.0%, 코스피 대비 -0.8%p
- ◆ 원유선 운임 VLCC 급등 지속 및 중소형 선형으로 강세 확산. 컨테이너선은 미주 상승과 유럽 하락 움직임 지속, 홍해 컨테이너선 통항량은 안정적 추이 유지
- ◆ 항공화물 운임은 아태-북미 지역 중심으로 상승 추이

운송 주요 종목 주간·YTD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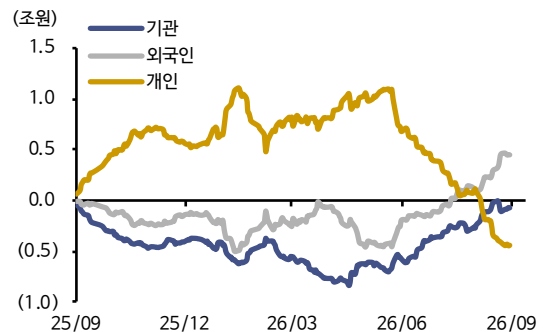
자료: 에프앤가이드 QuantiWise, 신한투자증권

운송 커버리지 및 코스피 주가 추이



자료: 에프앤가이드 QuantiWise, 신한투자증권

운송 업종 수급 차이



자료: 에프앤가이드 QuantiWise, 신한투자증권

운송 업종 주가수익률 및 수급 동향 (9/18 종가 기준)

업종	기업명	시가총액 (십억원)	주가수익률 (%)						주단 순매수 금액 (십억원)			1M 컨센스 변화율 (%)	
			주간	1M	3M	6M	1Y	YTD	개인	기관	외국인	매출액	영업손익
지수	코스피		(0.2)	0.4	(23.9)	16.4	99.2	63.6					
	코스피 운송·창고	55,820.2	(1.0)	(1.2)	(0.7)	(5.5)	0.8	7.5	(25.3)	36.3	(11.3)		
	KRX 운송	55,374.2	(1.4)	1.0	1.2	(4.9)	5.3	11.4	(26.3)	38.2	(11.8)		
항공	대한항공	10,788.9	1.2	16.0	1.6	14.9	24.2	29.9	(22.9)	15.6	7.3	0.2	(4.3)
	아시아나항공	1,592.3	0.4	12.4	4.0	6.9	(18.6)	(1.7)	(0.7)	0.6	0.1		
	진에어	301.7	(2.5)	12.7	(4.5)	(10.7)	(31.5)	(16.6)	0.1	0.0	(0.2)	1.0	(4.1)
	제주항공	350.4	(8.2)	5.3	(11.2)	(15.8)	(34.8)	(19.7)	0.9	(0.0)	(0.8)	1.1	32.4
	트리니티항공	266.5	(4.0)	(16.6)	(39.4)	(53.4)	(71.1)	(62.2)	0.1	0.0	(0.2)	1.6	(64.3)
해운	HMM	19,619.4	(0.2)	(8.2)	1.7	(1.4)	(9.6)	1.5	(7.7)	10.5	(2.6)	1.1	3.9
	팬오션	3,073.8	(4.6)	(4.8)	12.1	10.8	38.2	49.4	5.5	6.5	(12.2)	(0.2)	0.2
	대한해운	652.0	(3.4)	(2.7)	(1.9)	(11.0)	11.7	15.0	0.0	0.0	(0.1)	1.8	0.7
물류	현대글로비스	15,262.5	(2.4)	(1.5)	(4.0)	(14.0)	8.5	12.7	(2.1)	3.9	(1.5)		
	CJ대한통운	1,608.3	(2.4)	(6.4)	(13.4)	(40.2)	(17.5)	(25.5)	3.3	(1.0)	(2.2)		
	한진	223.0	(1.9)	(6.0)	(13.8)	(25.6)	(30.6)	(27.1)	0.4	0.0	(0.4)	0.0	86.3
	AJ네트웍스	186.0	(1.4)	(8.2)	(4.1)	(18.5)	(7.5)	(11.8)	0.5	(0.1)	(0.5)	1.1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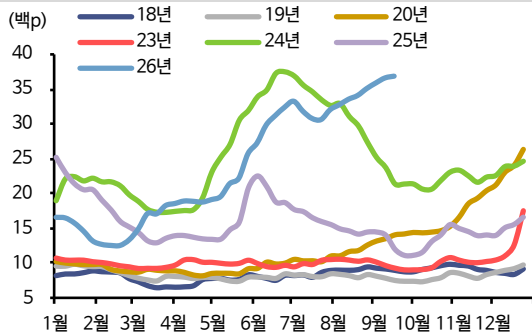
자료: 에프앤가이드 QuantiWise, 신하투자증권 / 주: 초록색/붉은색 음영은 최고/최저 수익률·순매수·컨센서스 변동

운송 주요 뉴스			
날짜	뉴스	관련 업종	관련 기업
9/14 (월)	중국 수출 폭주에 '자동차 운반선' 동났다..車 150만대가 컨테이너로 (머니투데이) - 중국 26년 8월 YTD 승용차 수출 620만대로 이미 25년 전체 수출량 초과 - Hoegh Autoliners 27년까지 중국발 수요 대비 공급 부족 지속 전망, 용선료 2년만에 최고 수준	종합물류	현대글로벌비스
9/15 (화)	아시아나 마일리지, 대한항공서 10년간 사용...보너스좌석 늘린다 (연합뉴스) - 마일리지 통합안 최종 승인, 전환 원할 시 비율은 탑승 마일리지 1:1, 제휴 마일리지 1:0.82 - 아시아나 마일리지는 합병일인 26년 12월 17일부터 10년간 유지. 보너스 항공권 및 좌석 확대	항공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9/15 (화)	"하루 뱃삿 11억씩 납니다"...역대급 운임에 기업들 비명도 안나온다 (매일경제) - 중동~중국 항로 VLCC 하루 운임 최대 80만불까지 치솟아 - 호르무즈 통항 차질, 파나마 운하 가뭄, 중국발 태풍 겹쳐 전 선종 운임 동반 강세	해운	해운 전반
9/15 (화)	파나마운하 또 조인다...하루 36척→32척→29.5척 (해사신문) - 파나마운하청, 10월부터 하루 평균 운하 통항량 29.5척으로 제한 방침 - 엘니뇨는 26년말 정점으로 27년까지 영향 미칠 가능성, 27년 예산도 일평균 29.5척 통항 반영	해운	해운 전반
9/15 (화)	제미니, 亞-유럽 4개노선 추가로 수에즈 복귀 (해양통신) - 머스크-하파로이드, 제미니 네트워크 4개 서비스 단계적으로 수에즈 운하 경유로 전환 - 현재 아시아-유럽 항로 홍해 정상화율은 27% 수준으로 추정, 화물 적재 적은 백홀부터 복귀	해운	HMM
9/16 (수)	넓어진 한중 하늘길...저비용항공사 '알짜노선' 운수권 확대 (연합뉴스) - 운수권 배분 결과, 인천 및 지방 공항~중국 노선에 LCC 대거 신규 진입 - 트리니티는 한국~체코 운수권, 대한항공은 인천~울란바토르 운수권 확보	항공	항공 전반
9/16 (수)	VIG파트너스, 이스타항공 이어 에어프레미아 인수 추진 (조선비즈) - VIG파트너스, 에어프레미아 인수 위해 AP홀딩스/타이어뱅크와 협상 진행, 지분 70% 3천억원대 23년 이스타항공 이어 3년만에 LCC 인수 추진	항공	항공 기타
9/16 (수)	美 이란 충돌에 10월 국제선 유류할증료 두달연속 상승... "최대 2만원 이상 올라" (뉴시스) 10월 국제선 유류할증료, 9월 대비 2단계 오른 23단계 적용되며 두 달 연속 상승 - 대한항공 최장거리(뉴욕, 댈러스, 보스턴) 기준 편도 36만 2,600원 부과	항공	항공 전반
9/16 (수)	대한항공, 보잉·GE서 61조원 항공기·엔진 도입 (한국경제) - 대미 투자 발표 1년만에 확정 계약, 보잉 항공기 103대(49.5조) 및 GE 엔진 구매(11.8조) 2030년 말까지 순차 인도, 아시아나항공 통합 이후 기단 233대에서 향후 300대 이상 확장	항공	대한항공

자료: 언론 보도 종합, 신한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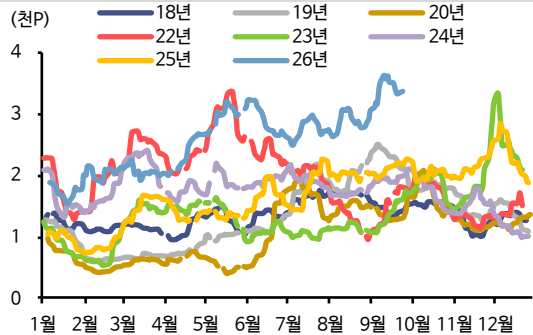
운송 주요 차트

컨테이너선 운임(SCFI)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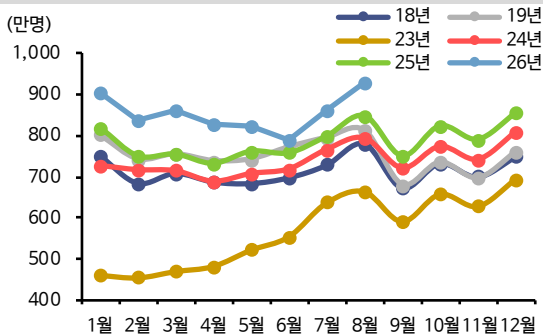
자료: Clarksons, 신한투자증권

벌크선 운임(BDI)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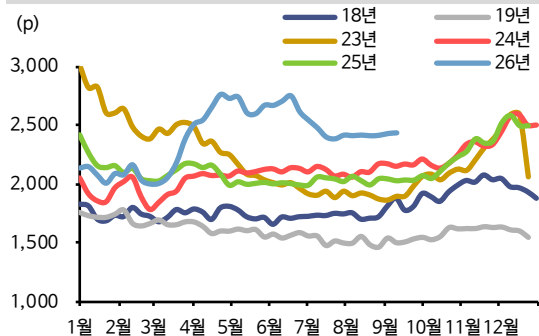
자료: Clarksons, 신한투자증권

국내 공항 국제선 여객 수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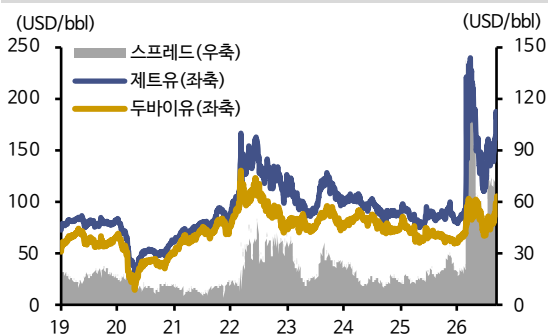
자료: 에어포탈, 신한투자증권

BAI 항공화물 운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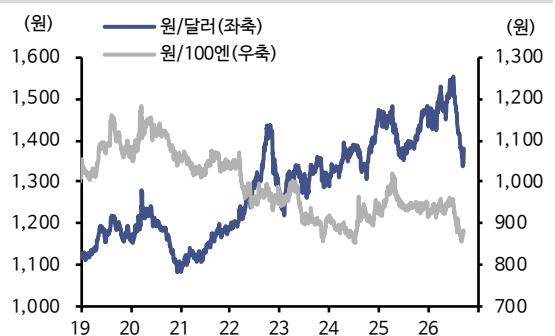
자료: TAC Index, 신한투자증권

유가 및 제트유 추이



자료: Bloomberg, 신한투자증권

주요 환율 추이



자료: 에프앤가이드 QuantiWise, 신한투자증권

Compliance Notice

- ◆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최민기)
- ◆ 자료제공일 현재 조사분석 담당자는 상기 회사가 발행한 주식 및 주식관련사채에 대하여 규정상 고지하여야 할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으며, 추천의견을 제시함에 있어 어떠한 금전적 보상과도 연계되어 있지 않습니다.
- ◆ 당 자료는 상기 회사 및 상기 회사의 유가증권에 대한 조사분석담당자의 의견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으나 이는 자료제공일 현재 시점에서의 의견 및 추정치로서 실적치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를 유도할 목적이 아니라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목의 선택이나 투자자의 최종결정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재배포 될 수 없습니다..